

경제

종합건설사 2곳 중 1곳 '부적격'

광주·전남 건설사 1125곳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종합건설 129·전문건설 947·설비건설 43·시설물관리 6개사

광주·전남 건설사 중 자본금 미달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업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건설사 2곳 중 1곳이 부적격 업체로 적발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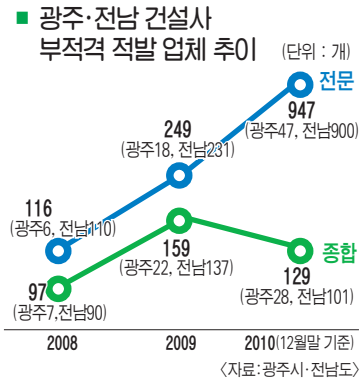
2일 국토해양부와 광주시,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9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전국 3만955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총 1만 964개의 부적격 건설사를 적발했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는 1125개사로 전체의 10.2%에 달했다. 실태조사는 각 업체가 2010년 제출

한 연말 결산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이들 적발 업체는 자본금·기술능력·보증가능금액 미달 등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했거나 소재 불명, 자료 미제출 등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종합건설 129개사(전국 1291개사, 9.9%), 전문건설 947개사(전국 9673개사, 9.7%), 설비건설 43개사, 시설물관리 6개사 등 총 1125개사다. 이는 전년도 408곳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합건설사는 조사 대상업체 2곳 중 1곳이 부적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은 전체 46개 조사업체 중 28곳이, 전남은 189개 업체 중 101곳이 적발돼 부적격 업체가 무려 60.



8%, 53.4%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모든 업체가 자본금이 미달했고, 기술능력과 보증가능금액 미달이 각각 14곳, 4곳으로 중복 적발됐다.

지역 업종별로 보면 광주지역은 종합건설이 2008년 7곳에서 2009년 22곳, 지난해 28곳으로 증가했다. 전문

건설은 6곳에서, 18곳, 47곳으로 해마다 3배 가까이(261%) 폭증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더 심각하다. 종합건설의 경우 101곳으로 전년도 137곳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전문건설은 2008년 110곳, 2009년 231곳에서 지난해 900곳으로 무려 389% 증가했다.

적발된 업체는 해당 지자체의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건설업체 구조조정과 건설경기 침체, 등록기준 강화 등으로 부적격 적발 업체가 크게 늘었다"며 "하지만 이들 업체를 상대로 청문조사 등을 거치면 실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증시 '활짝' 코스피가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 힘입어 전날 증가보다 49.04P(2.69%) 오른 1,875.41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코스피 유럽발 훈풍에 49.04P 급등

1875.41에 마감

코스피가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 힘입어 5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3일 코스피는 49.04포인트(2.69%) 오른 1875.41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날 증가보다 20.19포인트 오른 1846.56으로 출발해 장중 28.85포인트를 추가했다.

독일의 경제지표가 개선돼 유럽 증시 주요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호재가 됐다.

독일 정부는 작년 고용 인구가 4천

104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일 발표했다. 작년 소비도 지난 10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이 소식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지수는 3.00% 급등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도 1.98% 올랐다.

외국인은 하루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 3천154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도 2858억원의 매수우위를 나타냈다. 개인은 차이실현에 나서 9729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강한 매수세를 보여 1조3024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로 인해 현물·선물 가격차인 베이스가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4824억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비차익거래를 합한 프로그램 매매의 순매수 규모는 9536억원에 달했다.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도 모두 올랐다. 삼성전자는 2.31% 오른 11만5000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SK이노베이션(6.41%), 현대중공업(5.80%), NHN(5.02%), LG(4.88%), S-Oil(4.48%) 등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7.04포인트(1.39%) 오른 513.83을 나타냈다.

안철수연구소는 장중 주가가 16만 7200원까지 올라 사상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주가수익비율(PER)도 100배를 넘어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00원 하락한 1,150.8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황제의 귀환'

삼성전자 장중 110만원 사상최고가 경신

삼성전자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장중 110만원까지 올랐다. 증가 기준 종전 최고가는 12월12일 108만4000원이다.

작년 8월19일 52주 최저치인 67만 2000원을 기록한 주가가 5개월도 안 돼 63.7% 급등했다. 그 사이 코스피가 1,744.88에서 1,861.58로 6.7% 오른 것과 비교해 10배에 가까운 상승세다.

시가총액은 오전 11시 현재 161조원으로 사상 처음 160조원을 넘어섰다. 단기간에 주가가 극적으로 반등한 것은 글로벌 불황 속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이

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폰 등 거의 모든 사업부에서 후발업체들을 완벽하게 따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분기에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전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스마트폰 판매 호조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이미지센서 등 모바일 부품과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판매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25개 증권사의 목표가격 평균은 125만원으로 현 주가보다 13% 가량 높다. 하지만 앞으로 차익매출 출회 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875.41 (+49.04)
▲ 코스닥지수	513.83 (+7.04)
▲ 금리 (국고채 3년)	3.35% (+0.01)
▲ 원·달러 환율	1150.80원 (-5.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서비스드 레지던스' 생활숙박업으로 분류 시행령 개정안 통과

취사까지 가능한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형태의 숙박 서비스 업체에 대한 법적 분류 체계가 갖춰졌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을 취사설비 설치 금지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레지던스 호텔' 처럼 취사시설이 포함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생활숙박업'으로 정의된다.

이외 일반 숙박업은 취사시설을 제외 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객실 안에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기존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규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 시행령을 바탕으로 취사시설 설치시 환기 등 위생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레이 100대를 잡아라"

31일까지 이벤트

기아 14개 차종 중 고객들이 4개 차종을 골라 순서대로 배



전 출생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당첨자는 다음달 10일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레이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누적 계약대수 1만대를 넘어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식·부동산 부자 친인척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국세청 새해 업무보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층 엄격해진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진다.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을 추진목표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숨은 세원을 양성화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

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세무조사는 순환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 등 관련된 동시조사를 병행하고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 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을 중점 조사한다.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이전 혐의가 눈에 띄면 이전가격 조사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주기를 확대해 기업부담

을 줄여주지만,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가려내려는 조치다.

국세청은 또 보유재산과 비교해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한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기로 했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확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 등 취약업종을 겨냥해서는 신고 즉시 사후검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을 사전 차단기로 했다.

/연합뉴스

방값 걱정없이 공부만 할순 없을까?

대학이 방값걱정, 이제 LH와 상담하세요.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LH가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물량 : 450호(광주 350, 전남 100)

◆입주대상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타지역출신인 가구의 대학생(2012년도 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보호대상 한부모가족/아동복지시설특소 대학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2,003,830원) 이하 가구 100%(4,007,671원) 이하 장애인 가구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생

◆지원주택 및 규모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광역시, 도)내 전용면적 40㎡(2인 이상 60㎡)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한도액 : 광주 5천만원/호, 전남 4천만원/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 저소득가구 대학생), 200만원(2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1순위) 또는 연3%(2순위)이하 해당액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임대기간 : 최초2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단, 졸업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

◆신청기간 : 2012.1.9(월)~13(금)
※정시 합격자는 2012.2.13(월)~15(수) 별도 접수예정(발표 : 2012.2.17)

◆접수방법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방문 접수

◆입주 대상자 발표 : 2012.1.20(금)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확인

◆기타사항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http://www.lh.or.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600-1004(LH콜센터), 1577-3399(전월세지원센터)

2011.12.30

국토해양부 LH 광주전남지역본부